

긴급 사태 조치에 따른 사업자 지원책에 관하여

5월 11일(화요일) 발표

5월 12일(수요일)부터 긴급 사태 조치 기간에 들어갑니다.

금번 긴급 사태 조치로 외출 자제와 휴업·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의한 영향이 광범위에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조기에 국가·현·시정촌이 하나 되어 폭넓은 사업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지원책은 3가지입니다.

음식점 대상 임대료 지원
【후쿠오카현 감염 확산 방지 협조금】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에 의해
주류·노래방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는 점포**

**임대료 월액×2/3
(상한액 20만 엔)**

○첫 번째로 긴급 사태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입니다.

5월 7일(금요일)에 발표한 지원에 추가로 후쿠오카현의 독자적인 ‘임대료 지원’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주류와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며, 휴업 또는 주류·노래방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고 20 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조해 주신 사업자입니다.

점포 임대료 월액의 2/3 지원, 상한액은 20만 엔입니다.

현의 지원금에 시정촌이 추가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차 지원금

현 주류 판매 사업자
 최대 20만 엔(법인)
 최대 10만 엔(개인)

정부 중소기업자 등
 최대 20만 엔(법인)
 최대 10만 엔(개인)
 매출 감소 50% 이상

현 중소기업자 등
 최대 10만 엔(법인)
 최대 5만 엔(개인)
 매출 감소 30% 이상~50% 미만

○ 두 번째로 정부가 발표한 ‘월차 지원금’에 추가로 현의 독자적인 지원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에 따른 음식점의 휴업·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월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한액: 법인 20만 엔, 개인 사업자 10만 엔)

정부의 월차 지원금 대상이 아닌, 매출의 30% 이상 50% 미만이 감소한 중소기업자에게는 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1개월 10만 엔 이내, 개인 사업자는 1개월 5만 엔 이내입니다.

정부의 월차 지원금 대상(매출 50% 이상 감소)이 되는 주류 제공을 중지한 음식점과의 거래 실적이 있는 주류 판매업자 또한 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법인 1개월 20만 엔 이내, 개인 사업자 1개월 10만 엔 이내입니다.

대규모 시설·임차인 지원

[후쿠오카현 감염 확산 방지 협조금]

$$1\text{일 지급액} \times \frac{\text{요청에 따라 단축한 영업시간}}{\text{본래 영업시간}} \times 20\text{일 간}$$

1일 지급액	대규모 시설	임차인
	1,000㎡ 당 20만 엔	100㎡ 당 2만 엔

○세 번째는 ‘1,000m² 를 넘는 대규모 시설·시설 내 임차인 협조금’입니다. 대규모 시설은 영업시간을 20 시까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신 시설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협조금을 지급합니다.

1 일 지급액은 대규모 시설은 1,000 m² 당 20 만 엔, 해당 시설 내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게는 100 m² 당 2 만 엔을 기준으로 본래 영업시간에 대해 ‘20 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따라 단축한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지역 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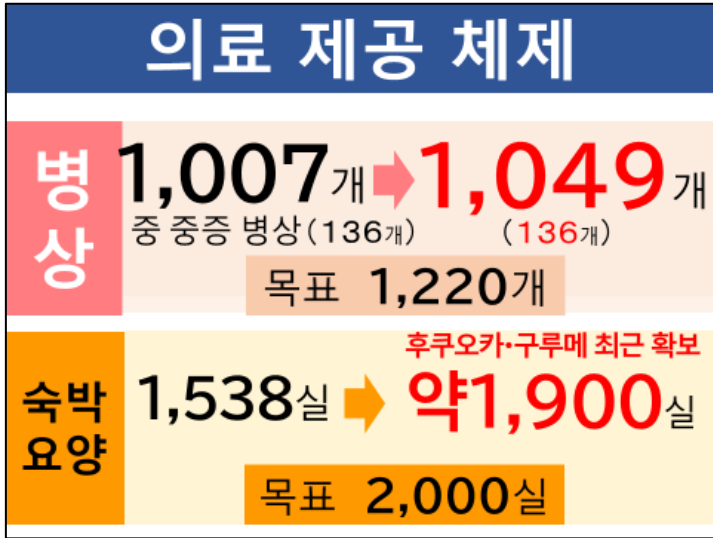
발행 규모 확대

233억 엔 → 343억 엔

프리미엄률 20%이상

○그 외에도 시정촌의 ‘프리미엄 지역 상품권’의 조기 발행을 촉구하고 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발행은 7 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프리미엄률은 20% 이상입니다.

○백신 접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므로 금일, 정부에게 후쿠오카 시내에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대규모 접종 센터 설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현에서는 의료 체제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은 금일 42 개를 새로이 확보하여 1,049 개가 되었습니다. 목표인 1,220 개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 기관과의 협의를 가속함과 동시에 중증 병상의 추가 확보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주야불문

**불필요한
외출 자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휴 이후 500 명을 넘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주야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통근 등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